

학생수 줄어도 광주 학원은 ‘불야성’

1만명당 174.12개 ‘전국 3위’
동구, 서울 강남이어서 최다 밀집
사교육비 月 평균 22만8000원

광주 지역의 학생 1만 명당 사설학원 수가 174.72개로 전국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밀집지역인 동구는 299.56곳으로 서울 강남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많았다.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계 정보 사이트인 내고장알리미(LAIS)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및 지자체 별 학생과 사설학원 수 현황’자료를 보면 광주는 학생 1만 명당 사설학원 수가 174.12곳으로 전북(179.34개)·울산(174.67개)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3위를 차지했다. 광주 학생 수는 ▲2014년(22만481명) ▲2015년(21만2632명) ▲지난해(20만2963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사설학원 수는 ▲2014년(3497개) ▲2015년(3535개) ▲지난해(3534개)로 사실상 유지부동이다.

학생수 감소에도 학원이 줄지 않는 것은 공교육을 불신하는 풍조와 사교육 물입으로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사설 학원수(124.43개) 중위권을 기록한 전남지역 학생 수는 ▲2014년(23만258명) ▲2015년(22만2581명) ▲지난해(21만3135명)이며 사설학원 수도 ▲2014년(2853개) ▲2015년(2737개) ▲지난해(2652개)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광주지역 지자체 별로는 동구가 299.56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 강남(322.61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다. 이어 ▲서구 234.71개 ▲북구 162.46개 ▲광산구 149.89개 ▲남구 143.25개 등의 순이다. 전남에선 여수가 167.44개로 가장 많은 반면 신안은 33.82개로 가장 적었다.

사설학원이 줄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덩달아 줄어 들 수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전남은 사설학원 수가 2737개(2015년)→2652개(지난해)로 전년 대비 85개 줄었는데,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16만5000원(2015년)→16만2000원(지난해)으로 감소했다. 광주는 같은 기간 1곳 줄면서 사교육비는 2년 연속 22만8000원을 기록했다. 사설학원 수 증감 추이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주에서 학생 수 대비 사설학원 수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적 특색도 있지만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공교육보다 높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31사단 점심 메뉴는 짜장” 9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31사단 병영식당에서 일곡동 주민과 오감봉사단원들이 장병 1800여명에게 짜장면을 나눠주고 있다. 오감봉사단은 전국 군부대를 돌며 짜장면을 제공하는 봉사단체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교육청, 교육행정평가 전국 1위

리얼미터 설문...2명중 1명 “잘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8일 발표한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행정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리얼미터는 지난 6월부터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도도를 교육행정평가로 바뀌 공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49.4%의 ‘잘한다’(교육행정)는 긍정평가로 전국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45.4%)·전북도교육청(43.3%)·광주시교육청(41.9%)·서울시교육청(41.6%) 등의 순이다.

이번 평가에서 장만재 교육감이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들은 물론 교육가족과 소통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독서·토론수업으로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고 무지개학교 운영, 기초·기본학력 향상, 특성화고 취업률 증가 등 교육력 향상에 집중해왔다. 리얼미터 7월 월간 정례조사는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IVR),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조사했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1%다. /이종행기자 golee@

오늘의 날씨

겨울 재촉하는 비

차차차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주	가	금	하	리	고	비	8/20	보	성	하	림	5/18				
목	포	하	림	11/18	순	천	하	림	8/19								
여	수			12/19	영	광	가	금	하	리	고	비	9/19				
나	주	가	금	하	리	고	비	6/19	진	도	하	림	6/18				
완	도	하	림	12/19	전	주	하	림	8/20								
구	레	가	금	하	리	고	비	4/18	군	산	가	금	하	리	고	비	6/19
강	진	하	림	7/20	남	원	가	금	하	리	고	비	3/19				
해	남	하	림	5/20	흑	산	도	가	금	하	리	고	비	13/18			
장	성	가	금	하	리	고	비	5/1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주	남	동	서	북	
남부	앞	바다	남	동	서	북
	면	바다	남	동	서	북
남해	주	남	동	서	북	
서부	앞	바다	남	동	서	북
	면	바다	남	동	서	북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1:27	06:25
	—:—	19:14
여수	37:06	01:00
	20:13	13:54

◇주간 날씨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7/13	3/14	4/16	8/13	4/12	3/14	7/14

해출 07:02
해진 17:30

몰입 23:37
달집 12:48

서울

충청

강원

인원

청주

독도

대전

전주

대구

광주

부산

제주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함께하는 달빛동맹 세번째 이야기

DAEGU

GWANGJU

달구별

빛고을

소통
+
나눔
+
기쁨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달빛’은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뜻하고, ‘소나기’는 소통 + 나눔 + 기쁨을 표현한 합축어로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는 대구와 광주의 젊은이들이 만나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화합의 행사입니다.

멘토특강
뮤지컬배우 민우혁

2017. 11.18 SAT — 11.19 SUN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내 중앙컨벤션

11월 18일(토)

Part1. 달빛소통 14:00~16:00

Part2. 달빛나눔 17:00~21:00

11월 19일(일)

Part3. 달빛기쁨 09:00~14:00

담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지역문화콘텐츠 중시자 및 문화콘텐츠에 관심있는 광주시민(20~39세) 모집기간 : 2017. 11. 14(화) 까지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참가비 : 없음 참가방법 : 이메일 접수 saup@kwangju.co.kr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최 · 주관

광주일보

영남일보

후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벌써...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잇따라 고발

광주·함평·해남 등 구청장·군수 후보 사전 선거운동·금품 제공 혐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광주, 전남 선관위로부터 잇따라 고발됐다. 9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조직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평군수 입후보 예정자 A씨, 조직총책 B씨, 수행기사 C씨 등 3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사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2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조직의 각종 모임에 B씨와 함께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C씨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지세력을 확장하려고 음·면책 식사모임을 29차례 열고 지난 7월에는 권리당원 모집활동비로 음·면책에 94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앞서 8일 해남군수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성 기사가 실린 월간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D씨와 E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D씨 등은 해남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F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지 300부를 지난 7월부터 해남지역 이·미용 업소에 우편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지역민에게 추석 선물을 제공한 모 공단 소속 G씨와 단속 관련 서류를 훼손한 H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교육청, 비리 공익제보자 신상공개 ‘물의’

제보자, 교육청 고소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 비리 내용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 신상 정보를 재단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용집(비례) 의원은 9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S여고 교육력제고비 횡령사건 공익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시교육청이 사학재단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에는 횡령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교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어서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시교육청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과 조례는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수든 아니든 시교육청이 이를 어겼다”고 질타했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를 재단에 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공익제보 내용도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